한국 기업 투자 2년째 급감 베트남 '신남방 포스트' 흔들

2019년부터 4,553건→2,786건→1,942건 하락

코로나 대응·방역 문제점 드러나 투자 심리 위축

신남방 정책의 핵심 포스트인 베트남에서 최대 투자국인 한국 기업들의 투자가 2년 연속 대폭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및 이를 계기로 드러난 현지 정부의 위기 대응 및 방역 정책의 문제점으로 인해 기업들의 투자 심리가 위축됐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24일 베트남 기획투자부(MPI) 통계에 따르면 한국의 대 베트남 총 투자 건수는 지난해 1,942건으로 재작년(2,786건) 대비 30.3% 줄었다.

재작년에는 전년과 비교해 38.9% 감소했다.

앞서 지난 2017년부터 3년간은 2,606건, 3,345건, 4,553건으로 매년 증가세를 보였다.

총투자는 신규 및 증액 프로젝트를 비롯해 M&A(인수합병)·주식 매입 등을 포함한 수치다.

특히 지난해 신규 프로젝트 투자는 361건으로 재작년(609건)보다 40% 가량 줄었다.

반면 총투자액은 지난 2019년에 79억1,700만달러를 기록한 뒤 2020년에 39억4,900만달러로 반토막이 났으나 지난해 49억5,300만달러로 늘어났다.

이는 LG디스플레이의 대규모 라인 증설 등 한국 기업들이 사전에 결정된 투자를 단행한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LG디스플레이의 경우 지난해 2월과 8월 두차례에 걸쳐 총 21억5,000만달러 규모의 증설 투자에 나섰다.

현지의 한국 기업들은 2년 연속 베트남 투자가 크게 위축된 것과 관련해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경영 환경이 악화됐기 때문이라고 입을 모았다.

특히 팬데믹(감염병의 대유행)을 맞아 베트남 정부가 보여준 대응 방식의 문제점과 무리한 요구에 기업들이 등을 돌린 결과라는 지적도 도처에서 나온다.

앞서 베트남 정부는 4차 코로나 유행이 한창이던 지난해 6월 백신 조달이 여의치 않자 구매비를 마련하기 위해 한국을 비롯한 외국 기업들에게 손을 내밀었다.

당시 기업들은 코로나 확산으로 인해 매출 감소 등 경영난에 처한 상황에서 백신구매비를 노골적으로 요구하는 것은 도무지 납득할 수 없다면서 강하게 불만을 제기했었다.

그러나 결국 삼성전자와 LG전자, SK, 롯데, CJ 등은 결국 베트남 중앙 정부 및 지방성 정부에 백신 구매비를 납부했다.

호찌민 등 공단이 몰려있는 남부 지역의 경우 공장 내에 직원들이 머물면서 일할 수 있도록 숙박 시설을 마련하라는 당국의 지침으로 인해 삼성전자를 비롯한 외국계 기업들이 조업에 차질을 빚었다.

올해 전망도 그다지 밝지 않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지난해 6월 현지에 진출한 한국기업 190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97.4%가 베트남 정부의 방역 대책이 내년 신규 투자에 영향을 미친다고 답했다.

이는 베트남 정부가 강력한 방역 정책을 펼 경우 경영난이 가중된 한국기업들로서는 내년도 투자 규모를 당초 계획에 비해 줄일 가능성이 크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한국은 작년말까지 누적금액 기준으로 베트남 최대 투자국이다.

MPI 통계에 따르면 한국의 누적 투자액은 746억5,600만달러로 전체 투자액의 18.3%를 차지했고 다음으로 일본이 643억9,700만달러(15.8%), 싱가포르는 643억6,100만 달러(15.8%)를 각각 기록했다. /연합뉴스

러시아 침공 대비 훈련 23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 수도 키예프에서 군 조교가 정부 지원을 받는 민방위 부대인 '국토방위대' 대원들을 교육하고 있다. 우크라이나 국경에서 러시아의 군사 배치와 훈련이 이어져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최근 우크라이나 민간인 다수가 국토방위대에 자진 합류해 전투 훈련을 받고 있다. /AP=연합뉴스

미국, 발트해·동유럽에 병력 증파 검토

NYT "우크라 위기 군사대응 자제 기조 변화 시사"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동유럽과 발트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회원국에 전함·항공기와 함께 병력 수천명을 파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뉴욕타임스(NYT)가 2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NYT는 익명의 정부 소식통들을 인용해 이같이 전하고 이는 미국 정부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위협에 취해온 군사 대응 자제 기조에 변화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보도에 따르면 미 국방부 고위 관리들은 지난 22일 대통령 별장 캠프 데이비드에 머무는 바이든 대통령에게 병력 1,000~5,000명을 전함·항공기와 함께 동유럽·발트해 나토 회원국에 파견하는 등 미군 자산을 러시아에 더욱 가까이 배치하는 방안을 보고했다.

이 방안에는 상황이 악화할 경우 병력 파견 규모를 10배로 늘리는 내용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바이든 행정부는 그동안 군사 대응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는 빌미가 될 것을 우려해 자제해왔다.

하지만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위협 강도를 높이고 양국간 협상도 성과를 거두지 못하면서 대화와 군사적 대응을 병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소식통들은 바이든 대통령이 이번 주 초 결정을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연합뉴스

'우한 코로나 책임자' 2년 만에 공직 복귀

부적절한 대응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이 우한에서 세계로 퍼져나가는 것을 저지할 소중한 기회를 잃게 했다고 비난을 받았던 전 우한시의 책임자가 공직에 복귀했다.

공교롭게도 그가 우한 봉쇄 2주년 날 공직에 돌아왔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중국에서 비판 여론이 일었지만 당국은 인터넷 검열로 대응했다.

24일 후베이성 인민대표대회 홈페이지에 따르면 전날 연례회의에서 마궈창 전 우한시 당서기가 후베이성 인민대표대회 부주임으로 선출됐다.

마궈창은 코로나19 확산 초기 우한시 일인자인 당서기를 맡았던 인물로서 중국 당국의 코로나19 초기 대처 실패를 상징하는 인물 중 하나다.

마궈창이 이끌던 우한시 당국은 2019년 12월부터 화난수산시장 상인을 중심으로 사스(SARS·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와 유사한 중증 호흡기 질환이 퍼지고 있다는 사실을 축소·은폐하고 미온적 대처에 나서 인류가 이 병의 확산을 조기에 통제할 수 있는 결정적 기회를 놓치게 했다는 비난을 받았다.

결국 그는 우한 봉쇄 직후인 2020년 2월 13일 상급자인 장차오량 후베이성 당서기와 함께 경질됐다. /연합뉴스

2020년 1월 중국중앙(CC)TV와 인터뷰하는 마궈창 당시 우한 당서기. /중국중앙(CC)TV 캡처

기시다, 사도광산 염두 "근거 없는 중상엔 의연히 대응"

"역사 인식 아베 내각 계승" 외무상 "종합적으로 검토"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사진)는 24일 사도 광산의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 추진에 한국 정부가 반발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근거 없는 중상에는 의연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기시다 총리는 이날 오전 중의원 예산위원회에 출석한 자리에서 관련 질의에 "역사 인식과 관련한 문제는 저의 내각에서도 중시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저의 내각에서도 역사 인식에 관한 문제에서 아베 신조 내각 이후 체제를 계승하고 있다"며 "정부 차원에서 국제사회 홍보를 포함해 역사 문제에 확실히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지난달 28일 일본 문화청 문화심의회는 일제강점기 조선인 징용 현장인 사도 광산을 세계유산 추천 후보로 선정했다.

이에 대해 한국 정부는 "한국인(조선인) 강제노역 피해 현장"이라며 "매우 개탄스러우며 이를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며 반발했다.

일본 정부는 유네스코에 추천서를 제출하는 기한인 다음 달 1일까지 사도 광산을 세계유산 후보로 공식 추천할지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한국의 반발로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 심사에서 탈락할 가능성 등을 고려해 추천을 보류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다.

하야시 요시마사 외무상은 이날 중의원 예산위에서 사도 광산의 세계유산 추천 여부와 관련해 "무엇이 가장 (세계유산 등재에) 효과적인가라는 관점에서 정부 내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하야시 외무상은 한국에 대한 외교적 배려는 아니라면서 "사도 광산에 관한 한국 측의 (조선인 강제노동 관련) 주장은 일본 측으로는 전혀 받아들일 수 없으며, 한국 측에 강하게 의사 표시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상쾌한 아침을 여는 신문!
독자에게 새롭게 정확한 뉴스!!
소신과 대안이 있는 정보!!!
따뜻하고 아름다운 이야기로 여론을 선도하며,
소통과 화합을 통해 지역신문 발전에 큰 힘이 되겠습니다.

◆ 시·군지사

광산지사	010-3601-1102	장흥지사	010-3613-6114
목포(갑)	010-3272-2765	강진지사	010-6646-1241
목포(을)	010-3635-6777	해남지사	010-8181-2627
여수지사	010-8648-1236	영암지사	010-4624-8409
순천지사	010-2547-7890	무안지사	010-3621-8989
나주(갑)	010-7706-2410	함평지사	010-3600-0500
나주(을)	010-3713-7458	영광지사	010-8666-2882
담양지사	010-8004-9885	장성지사	010-3666-1300
곡성지사	010-6764-6100	완도지사	010-5619-7020
구례지사	010-6636-3039	진도지사	010-3624-4777
고흥지사	010-9151-2828	신안지사	010-4627-1472
화순지사	010-3100-0386	보성지사	010-5259-6441

전남매일

본사 주소 : (우)61639 광주광역시 남구 천변좌로 398 (사동)
기사제보 : T. 062-720-1050 / F. 720-1080 / jndn@chol.com
광고문의 : T. 062-720-1017 / F. 720-1020 / jnmi1000@hanmail.net